

지역 소식통

고창군, 마을 찾아가는 '추억의 변사극' 운영

고창군이 지난달 24~26일 3개 마을(심원면 죽곡마을, 상송면 내원마을, 신림면 신기마을) 주민들과 함께 '추억의 무성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화합 시간을 가졌다.

추억의 무성영화는 '이수일과 심순애', '청춘의 십자로'를 최영준 변사와 함께 상영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3일 동안 최영준 변사는 객석의 주민과 함께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며 진행해 나가 큰 인기를 얻었다.

최영준 변사는 "추억이 물씬 담긴 전통문화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부심 가득한 변사극을 통해 주민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 빠져들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12일 쌍화차거리서 마을·사회적기업 장터

정읍시는 오는 12일 쌍화차거리에서 사회적·마을기업 제품 판매·홍보행사 '아나(樂)네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당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을 알리고 단풍맞이 관광객들에게 마을·사회적기업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마을기업은 13개가 참여해 꽃차, 쌍화차, 참기름, 들기름, 반찬류, 귀리가공식품 등을 판매, 사회적기업도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소통과 활성화를 위한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읍시립농악단이 함께 해 옛정수 공연을 겸한 스토리형 마을기업 제품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자춤, 버나돌리기 등 다채로운 공연과 떡매치기, 송편만들기, 딱지치기 등 추억게임, 7080사진전과 각시타기와 연계한 꽃가마타기까지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함께하는 행사가 준비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사회적·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에 참여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 상임위·예결위원 대상 적극적인 현안사업 예산반영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7일과 8일 2일간 부안군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발의 신청을 펼쳤다.

권익현 군수는 2일에 걸쳐 이상현·김영덕·소병훈·안호영·유동수·허영·강훈식·김교홍·김민기·박정·서병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총사업비 117억원) 등 총 11건의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과 용적지구 논공단지 배수개선사업(150억원), 부안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60억



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208억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198억원) 등이다.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은 현재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에 해외 탄소섭유가 사용되

는 상황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섭유를 적용해 소재 국산화 및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은 부안을 포함한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질·생태·문화유산의 결합 관광을 통해 국내 최초 통합투어리즘을 실현하기 위해 구상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예산안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여야 국회의원과 협치와 소통을 통해 국회 단계에서 현안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염원'

부안군·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국회에 주민서명부 전달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운 부산 금정구청장)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23개 지자체는 올해 5월~7월, 두 달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34만 519명의 주민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냈고, 지난 9월 11일에는 주민서명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11월 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도시인 울산 중구청, 부회장 도시인 전북 부안군과 부산 금정구청의 단체장 및 실무진이 참석하였으며,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508만 주민 염원과 결의가 담긴 서명부를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에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10월 20일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통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의 선언과 더불어 행정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2대 회장으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2대 부회장으로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운 부산 금정구청장을 선출하였다.

울산 중구청과 전북 부안군은 원전인근지자체로 원전인근지역동맹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공통점 등에서 공감대를 모아 10월 31일에는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전용병동 설치사업 '순항'

정읍시, 지방소멸대응기금·지방비 22억원 들여 핵심공약 사업 순조롭게 진행

민선8기 정읍시의 핵심공약 사업인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설치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지방비 22억원을 들여, 정읍아산병원의 강당과 병동 일부와 리모델링해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아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병동은 24시간 소아환자에게 필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읍뿐만 아니라 서남권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중점 시책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 24억원을 들여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늘

려갈 계획이다.

더불어 내장산 문화광장에 자리잡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형 복합놀이시설 전사 히어로즈와 그 인근에 기적의 놀이터, 동화마을테마공간, 꼬마열차 등 놀이시설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며 "아동 의료기관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공공비축미곡 수매현장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8일 오전 2023년 공공비축미곡 건조비 수매현장(고창읍 월산창고)을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올해 고창군 공공비축미 총 매입량은 8,155톤으로 이 중 산물벼는 2,454톤이며, 건조벼는 5,701톤이다. 건조벼 물량은 올해 처음으로 매입하는 가루쌀 294톤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농가 인센티브 물량 301톤이 포함되어 있다.

산물벼는 관내 농협 RPC와 DSC를 통해 11월 말까지 신동진 품종을 매입하고, 건조벼는 2개 품종(신동진, 수광)을 읍·면 26개소에서 11월28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는 품종검정제도에 따라 출하농가 중 5% 정도를 표본으로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 그 결과 정부가 정한 매입대상(신동진, 수광)의 품종이 20% 이상 혼입되면 내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입품종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2023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매입대금은 농가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매한 즉시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12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향일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농업인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축산용 미생물센터, 효능평가 성과보고회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소재(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2023년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8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대혁 센터장, 전복도, 전복대, 기업체 등 농·생명 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효능평가지원사업은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검증과 안전성평가, 대량배양과 제형공정, 선도기업육성 등 기업체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국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선도기업육성과 제품생산 등 33개 기업체의 42개 분야 지원 건에 대한 주요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그린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센터는 미생물 제품의 산업화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끊임 없는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